

# '같이 살래요' 막장 없는 청정 가족극 '유종의 미'

### 세대별 고충과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 그려



같이 살래요'가 막장 없는 청정 가족극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9일 저녁 KBS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극본 박필주·연출 윤창범)가 50회 방송을 끝으로 종영했다.

같이 살래요'는 제화 장인 효섭네 4남매에게 빌딩주 로또 세입마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유쾌한 웃음과 감동으로 신종년 부모세대와 지식 세대의 찌꺼기, 사랑과 전쟁을 통해

고 또한 지인들 역시 두 사람의 사랑을 감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 등이 그려진 것.

그러나 '같이 살래요'는 갈등만 담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이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까지 담아냈다. 처음에는 새얼마가 생긴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가졌던 박효섭의 자녀들이 결국 아버지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이미연을 염마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냈다. 여기에 격렬하게 박효섭을 거부하던 최문식 역시 이미연과 박효섭의 사랑을 인정하고, 점차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같이 살래요'는 막장 소재 하나 없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온 두 가족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화합되는 과정만으로 극을 이끌어갔고, 이는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살래요'는 각 세대 별 애환을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취주생으로서의 애환과 불임 부부의 고충,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중장년 층의 모습을 각기 다른 에피소드로 풀어내며 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여타 드라마에서 흔히 등장하는 막장 소재 없이 '같이 살래요'는 최고 시청률 34.4%(43회, 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 자극적이지 않아도 흥행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이같이 청정 가족극으로서 세대 별 고충과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을 그려낸 '같이 살래요'는 시청자들의 호평 속에 막을 내리게 됐다.

## '미스터션샤인', 또 자체 최고 돌파...새 역사 쓸까



tVN '미스터션샤인'이 또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넘었다. 종영까지 4회 남은 상황에서 '도깨비'를 넘어서면서 드라마 시청률 기근인 상황에서 시청률의 새 역사를 쓰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스터션샤인'이 '도깨비'를 넘어선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뜻깊다.

지난 9일 방송된 '미스터션샤인'의 시청률은 평균 16.5%, 최고 17.8%(이하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 지상파를 포함해 전 채널 최고 시청률이다. 최근 드라마들의 시청률이 난조를 겪으며 두 자릿수 시청률을 돌파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다. '미스터션샤인'은 대세 중예 대세인 드라마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김은숙 작가와 이응복 감독 그리고 이병헌의 만남은 시작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도깨비'가 마지막 회에서 20.5%라는 기록을 세운만큼 '미스터션샤인'이 이를 넘어설 지 여부도

관심사다. 14%대에 머물던 시청률이 1%포인트 이상 뛰어 오른 만큼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인다.

'미스터션샤인'이 '도깨비'를 넘은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종영까지 4회가 남은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친일파와 일본에게 반격을 가하면서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유진 초야(이병헌 분)는 점점 더 기가막힌 만행을 저지르는 모리 타카시(김남희 분)에게 본격적으로 선전 포고를 했고, 고애신(김태리 분)이 총으로 친일파 중예 친일파 이완이(김의성 분)를 죽였다.

본격적으로 드라마의 후반부가 진행되면서 시청률이 오를 여지는 남아있다.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의병들과 유진에게 미국으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한 애신의 앞날 역시도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

일본이 조선을 망하게 만들고 식민통치를 한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 주는 '미스터션샤인'의 결말이다. 과연 정해진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미스터션샤인'이 어떻게 이 과정을 풀어낼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미스터션샤인'이 20%를 넘었다면 당분간 깨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과연 조선의 역사를 다룬 '미스터션샤인'이 시청률의 역사를 쓸 수 있을까.

## "시청률 20.7%" '미우새' 김종국·홍진영, 커플 발전할까



'보낸저스'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가수 김종국과 홍진영이 진자 커플로 발전할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한다면 예능 프로그램이 이어준 또 하나의 공식 커플이 될 전망이다.

9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우연한 기회로 함께 여류유가를 보내게 된 김종국과 홍진영의 일상이 담겼다. 이날 김종국과 매니저는 절친한 지인들과 강원도 흥천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때마침 근처에서 행사를 마친 홍진영이 이곳에 합류하면서 두 사람이 애정을 싣듯하게 됐다. 방송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찼'은 달랐다.

이날 앞서 김종국의 매니저가 홍진영의 매니저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제안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었다. 김종국과 홍진영은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여러 차례 커플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만큼 실제로 만나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지 기대가 모아졌다.

역시나 애교왕 홍진영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에 김종국은 상상하고 귀여운 그녀의 제안에 곧잘 없이 따르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두 사람의 달달한 편성 데이트는 시청률 20.7%(전국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까지 끌어올렸다.

홍진영은 이날 김종국에게 그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영상통화를 제안했고 "어머니 잘 부탁해요" "날씨도 더운데 밥 많이 드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안부 인사를 남겼다. 이에 김종국의 어머니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홍진영을 예뻐 며느리로 짐작해 봤기에, 아들과 실제 커플로 이뤄지길 바라는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홍진영의 특급 애교에 빠지지 않은 모멘저스는 없었다. 성별을 떠나 홍진영의 애교는 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진영은 김종국에게 "어머니가 오빠에게 전화해서 나랑 어떤 사이냐고 물어보셨대요?" 어머니가 이랑 영상 통화를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김종국은 부끄러워하면 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는 홍진영의 마음씨에 고마워했다.

게임에서 진 홍진영이 물따귀를 맞을 위기에 처하자 김종국은 흑기사를 자처해 시종일관 남치다운 면모로 관심을 모았다. 홍진영도 김종국에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마치 실제 연인 같은 분위기를 내뿜었다.

스튜디오에 있던 모멘저스 어머니들도 덩달아 김종국과 홍진영의 만남을 응원했다.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보기엔 둘이 서로 좋아하네" "김종국이 너무 멋지다. 홍진영이랑 잘 어울리네" "나는 홍진영 씨 같은 스타일 좋다" "김종국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재차 칭찬하며 공식 커플이 되길 한마음으로 바랐다.



## '물괴' 신선한 소재, 낯은 이야기



'물괴'는 도전적인 작품이다. 조선에 등장한 괴수라니 설정부터가 신선하다. 하지만 막장 분위기를 열고 보니 어디서 보왔던 사극 드라마가 펼쳐진다. 신선함과 진부함의 조화가 '물괴' 안에서 이뤄졌다.

조선을 배경으로 한 크리처물인 '물괴'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물괴'는 조선 중종 22년 갑자기 나타난 괴이한 짐승 물괴와 그를 쫓는 사람들의 사투를 담았다. 조선 왕조실록에 담긴 한 줄의 '물괴'의 시작점이 됐다.

실화를 바탕으로 '물괴'는 상상의 나라를 펼쳐냈다. 사극에 괴수라니 흔치 않은 설정이다. 일단 배경 자체가 신선함에 한 몫을 한다. '물괴'는 괴수가 탄생하게 된 계기를 역사적 인물들과 연결시켰다.

반정으로 인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된 연산군과 그 뒤를 잇는 힘없는 왕 중종, 그리고 반역을 꿈꾸는 대신들까지 정치싸움이 주를 이룬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괴물이 바로 '물괴'다. 물괴의 사연은 분명 연민이 느껴질만도 하지만 영화에선 그 시대의 가장 무서운 존재 중 하나인 역병을 포함해 더 큰 공포를 만들어냈다.

영화의 주인공인 물괴는 제작기간만 6개월, 20여개 이상의 비주얼 콘셉트를 거쳐 탄생했다. CG 작업으로 완성된 물괴는 외형부터 움직임까지 완성도면에서 훌륭하다. 역병을 풀고 있어 수포로 가득한 괴수, 사람을 삼키는 무시무시한 입에 거대하고 날렵한 움직임은 중공 조도화 시기는 물괴의 모습은 충분히 공포스럽다. 괴수 영화의 매력은 후반부에서 더욱 살아난다.

문제는 물괴가 등장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영화에서 물괴의 존재는 인물들의 대사만 전제하고 그의 존재가 드러나는 시점은 중반부터다. 그 전까진 대신들은 민중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허상일 뿐이다. 물괴의 존재 유무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중종과 대신들의 정치싸움이 주를 이룬다 보니 이야기는 늘어지고 지루하다.

영화 '물괴'는 오는 12일 개봉한다.

### 오늘의 순세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음력 8월 2일)

<p>▶<b>쥐</b> 몇 년 동안 짙은 담이 곧 암암해였다. 동서남북으로 뒤라. 바라는 일자리가 생긴다. 현재 있는 곳에서 옮기면 후회한다. 북쪽 사람과 답답한 문제를 상의하면 잘 풀린다.</p>	<p>▶<b>뱀</b> 어릴 때는 미래를, 장년은 현재를, 노년은 과거를 생각해한다고 했다. 1, 5, 9월생 그, 바, 사 성씨는 고민을 그만두고 오로지 생각하라. 내일을 욕심내다 화를 부르면 매사 조심하라. 검은색 옷을 입으면 좋은 일이 안 생긴다.</p>	<p>▶<b>원숭이</b> 연인과 함께 음식점에서 사 먹는 소라에서 진주를 얻는 격이다. 당신이 하려는 일 중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일로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돼지, 닭, 원숭이띠 협조만 얻으면 당신에게 행운이 온다.</p>
<p>▶<b>사슴</b>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오해를 산다. 실수가 빈번하니 신용 또한 없다. 오후에 기분 좋은 일이 있겠으나 2, 6, 12월 생을 조심하라. 그들에게 마음 상해 기분을 망칠까 우려된다.</p>	<p>▶<b>꿩</b>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와 있다. 하면 된다는 공지로 믿고 나가라. 말, 닭, 돼지띠에게 청탁 쉽게 풀린다. 4, 5, 6월생 붉은색 입으면 자신감 생긴다. 그, 바, 오 성씨는 금전에 유동 불길하니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p>	<p>▶<b>꿩</b> 꽃 피면 봄임은, 눈 오면 겨울임은 IQ 50도 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주겠으나 자리를 비우면 놓칠 수 있다. 전화 소리에 신경을 쓰라. 돼지, 닭, 원숭이, 토끼띠가 귀인이다.</p>
<p>▶<b>호랑이</b> 타인 사정을 듣지 말라. 귀찮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려 한다. 그동안 미뤄진 일이 내일이면 풀린다. 오, 흥, 바 성씨는 오늘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 번쯤 나를 돌아보라.</p>	<p>▶<b>말</b> 아들을 기다리는, 딸 둘 가진 아빠가 아내 임신 소식을 들은 것처럼 긴장된 한 주가 될 것이다.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서서히 추진하라. 서, 북쪽 사람과 약속한 일 성사한다. 바, 사, 흥 성씨 애정에 어려움이 있을 듯.</p>	<p>▶<b>꿩</b> 준비도 하지 않고 험한 산을 오를 사람이 길도 잃지 않고, 때가 돼 무사히 하산하는 격으로 뜻한 바를 순조롭게 진행한다. 그러나 기분이 좋다고 음주하면 호루라기 소리에 늦은 시간 기분을 잡칠기 쉽다. 1, 5, 12월생은 특히 조심하라.</p>
<p>▶<b>토끼</b> 갈 곳이 많다. 어디로 갈까 즐거운 고민을 한다. 서, 남쪽 사업은 성취한다. 북쪽 일은 지연한다. 동쪽에서는 어음을 받는다. 닭띠나 1월생이 화해를 청한다. 한발 양보할 때 더 깊은 정이 깎인다. 그, 사 성씨가 귀인이다.</p>	<p>▶<b>돼지</b> 저축도 없이 쓰지만 하면 쓸 때는 좋겠으나 목돈이 필요할 때는 후회할 것이니 참으라. 100원이 1000원이 되고, 언젠가 1억원으로 변하니 저축하라. 서두르지 말고, 사랑하는 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3, 4, 9월생은 웃는다.</p>	<p>▶<b>꿩</b> 지금까지 생각했던 힘든 일은 오늘부터 서두르지 않아도 될 듯하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어젯밤에 꿈 꿀을 꿨으면 복권을 사라. 북쪽에 행운이 있으니 도움 줄 자를 잡으라.</p>